

한미FTA와 인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 15:00~17:30
-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
- 주 최 : 인천광역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한미FTA와 인천 정책토론회 개요

1.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 15:00~17:30
2.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
3. 주 제 : 한미FTA와 인천
4. 주 최 : 인천광역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5.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
6. 참석자 :

구 분	성 명 / 소 속 / 직 위
발 표	박광순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일반기계산업팀장)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토 론	김종우 (인하공업전문대학 수송기계학부 자동차과 교수)
	배준영 (우련통운(주) 대표이사)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산업진흥팀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석용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 회장)
사 회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 진행 순서 -

- 개 회 식 15:00~15:10
- 개 회 사 :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 인사말씀 : 홍영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 주제발표 15:10~15:50
- 제1주제 : “한미FTA와 한국경제: 제조업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 박광순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연구위원)
 - 제2주제 :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휴 식 15:50~16:00
- 종합토론 16:00~17:30
- 토론 : 김종우 (인천지역혁신협의회 자동차및기계금속분과위원회 위원)
배준영 (우련통운(주) 대표이사)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산업진흥팀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석용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 회장)
 - 사회 :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 제1주제 : 한미FTA와 한국경제 : 제조업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1편> 한미FTA 타결과 제조업	4
I. 우리산업의 대미 여건과 협상결과	4
II. 우리산업의 영향 평가	7
<2편> 한미FTA 효과와 기계산업의 발전전략	13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13
II. 한미FTA 타결의 주요 내용	16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17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23

■ 제2주제 :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I.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1. 인천 산업구조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2. 인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34
3. 인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1
4. 인천 농업에 미치는 영향	42
5. 인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43
6.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	49
7.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영향	51
II. 한미FTA에 대한 인천지역경제의 대응방안	55
1. 제조업 분야	55
2. 중소기업 분야	60
3. 농업 분야	61
4. 무역 분야	63
5. 물류 분야	64
6. 경제자유구역 분야	65

제1주제

한미FTA와 한국경제 : 제조업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1편> 한미FTA 타결과 제조업

- I. 우리산업의 대미 여건과 협상결과
- II. 우리산업의 영향 평가

<2편> 한미FTA 효과와 기계산업의 발전전략

-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 II. 한미FTA 타결의 주요 내용
-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한미 FTA와 한국경제

- 제조업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

2007. 6. 22

발표 : 박광순 팀장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표순서

<1편> 한·미 FTA 타결과 제조업

<2편> 한·미FTA 효과와 기계산업의 발전전략



<1편> 한·미 FTA 타결과 제조업



우리산업의 대미 여건과 협상결과



우리산업의 영향 평가



우리산업의 대미 여건과 협상결과

1. 상품 교역 여건

● 미국 공산품 시장(1.3조불)은 우리의 주력수출시장

- ▶ 대미 수출은 '06년 428억불로 전체 공산품 수출의 13.4%를 차지
- ▶ 대미 무역흑자는 평균 115억불('04~'06년)로 대규모 흑자 지속

● 중국 등 부상으로 우리 공산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정체 내지 감소

- ▶ 시장 점유율(공산품, %): ('95) 3.4 ⇒ ('01) 2.8 ⇒ ('06) 2.4
- ▶ 품목별 시장 점유율(%)
 - 섬유: ('01) 4.4 ⇒ ('06) 2.1, 전자: ('01) 6.1 ⇒ ('06) 4.7

●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대미 통상마찰 가능성

<우리 업계의 요망사항>

- ▶ 중소기업은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 통관지연,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에 관심
- ▶ 미국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통한 통상마찰 해소 희망 등
- 중소기업중앙회('06.2), 무역협회('06.4), 전경련('06.8) 조사결과

5

KIET 산업연구원

2. 협상 개요

● 협상 요지

- ▶ '06.2.3 협상개시 선언이후, 14개월간 협상을 거쳐 '07.4.2일 협상 타결

- ▣ 총 8차례 공식협상, 고위급협상 및 장관급협상 개최

-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형식으로 당초 체결목적 반영

- ▣ 상품·투자·서비스·지재권·무역구제·경쟁·노동·환경 등 19개 분과협상 진행

- ▶ 양국간 협상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 원칙에 부합

- ▣ 조기(즉시·3년내) 관세철폐율이 90%가 넘어서는 높은 수준

● 향후 일정

- ▶ 협정서명: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올해 6월말 추진(목표)

- ▶ 효력발생: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 발효

6

KIET 산업연구원

3. 협상 타결 주요 내용

공산품

▶ 상호 높은 수준의 상품양허 개방 달성 (임수산물 제외)

	즉시	3년	즉시+3년	5년	10년 이상
	81.1 무관세제외시 32.2	13.2	94.3 무관세제외시 45.4	1.5	4.2
	85.5 무관세제외시 32.7	6.9	92.4 무관세제외시 39.6	3.4	4.2

▶ 공산품평균관세율(%) : [한 6.7, 미 3.3]

▶ 관세손실액(전품목관세철폐시, 연간, 억원) : [한 8.1, 미 9.4]

3. 협상 타결 주요 내용

서비스·투자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未개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 개방**

- ▣ 법률 회계 : 5년간 단계적 개방
- ▣ 방송 영화 : 일부 PP(Program Provider) 지분제한철폐·방송쿼터완화
- ▣ 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일부 완화 등

기타분야



- ▣ 정부조달 - 양국 중앙정부의 물품 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1.9→1억원)
- 입찰 낙찰과정에서 미국내 조달실적 제출 요구 금지
- ▣ 개성공단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 근거 마련
- ▣ 무역구제 - 양국간 '무역구제관련 협력위원회' 설치
- 반덤핑 조사 개시전 양국간 사전합의 해결 제도
-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상대국 제외 가능

4. 협상 타결 의의

① GDP 13조2,000억불('05) 규모의 세계 3위 경제 블록 탄생

- ▶ 한·미 FTA는 포괄적 FTA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
· GDP('05, 조불): (KORUS FTA)13.2(한0.8, 미 12.4), (NAFTA)14.3(미 12.4, 캐 1.1, 멕 0.8), (EU)13.4

②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기회

- ▶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접근성 개선, 대외신인도 제고  경제시스템 선진화
· 미국 수입시장 규모('05) : 1.7조달러(日+中+ASEAN 수입시장 규모)
- ▶ FDI 유치 확대, R&D 협력 강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對중·일 우위확보 추진

③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추진 모멘텀 확보

- ▶ KORUS FTA 체결로 확보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경제권과 FTA 확대
· EU(5월초 1차협상), 중국(공동연구중), 캐나다(4월말 10차협상), 인도(4월초 5차협상) 등

9

KIET 산업연구원



우리산업의 영향 평가

1. 한미 FTA 기대효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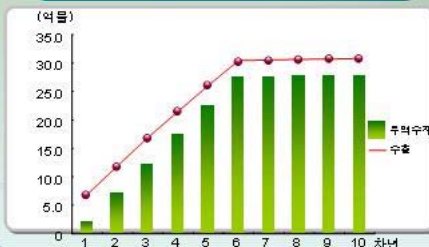


1. 한미 FTA 기대효과 개요

총 효과

-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 ▣ **對세계 수출** : 연평균 23.4억불 ↑ (10.8억불(관세인하)+12.6억불(생산성), 무역흑자 21.3억불 ↑)
 - ▣ **對미 수출** : 연평균 13.3억불 ↑ (10.8억불(관세인하)+2.5억불(생산성), 무역흑자 7.5억불 ↑)

對세계 무역확대 총효과



對미 무역확대 총효과



1. 한미 FTA 기대효과 개요

관세인하 효과

- ▶ 미국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후 10년간 **對미 수출 연평균 10.8억불 증가 전망**
 · 對미 수입은 연평균 6.0억불 증가 전망 (수입전환분 1.7억불)
- ▶ **對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8억불 증가 전망 (수입전환분 제외시 6.5억불)**



2. 무역확대 효과

① 양국간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로 교역확대 이익 극대화

- 미국산 첨단 부품·소재 수입 증대 ➔ **對일역조개선, 품질향상, 생산원가 하락**
- 한·미 양국은 **非경합적 수출구조**(한·중 고위기술제품, 미·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위주)

구분	한·미간 분야별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		
생산 구조	(미) 첨단부품소재, 자본재 + (한) 우수한 생산공정 →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수출 상품 생산 * (미) 반도체재료, 장비 + (한) 반도체 설계, 생산공정 → D램 세계 1위		
기술 협력	(미) 원천기술 + (한) 응용, 상용화 기술 → 첨단기술 상용화 * (미) 퀄컴사의 원천기술 + (한) 응용기술 → CDMA 세계최초 상용화		
주력 제품	(미)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 (한) 중 고위제품 위주 → 상호 경쟁보다는 특화된 시장에서 우위 확보		
	업종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	미국의 대한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	중소형승용차, SUV, 범용부품	대형승용차, 에어백/변속기 부품
	섬유	범용의류, 편직물, 재생원사	산업용 섬유, 패션의류, 재생섬유사
	일반기계	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기 등	반도체장비, 내연기관, 터빈
	전자	휴대폰, 메모리반도체, 가전 등	비메모리, 계측제어기기, 전자의료기기
	화학	범용제품(EPS, PET, ABS 등)	돌루멘, 자일렌, 실리콘수지 등
	철강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원료(철스크랩, 철광석), 반제품(열연강판)
생활용품	완제품(신발, 티셔 등)	원료(피혁, 합성고무, 의기부품 등)	

2. 무역확대 효과

2 美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로 對美 수출증대

● 미국 관세철폐('04. 단순평균 2.5%) ● 수출공산품 총판매가격 인하

※ 주요 수출품의 판매가격 인하효과(예시)

- 자동차 : 관세(2.5%) 철폐시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 섬유 :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평균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 전자 : 원제품 TV의 경우 관세(5%) 철폐시 42인치 HDTV 가격기준 약 80불의 가격인하 효과 발생

● 비관세 장벽(기술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 완화를 통한 미국시장 접근 개선

- ▣ 기술장벽 :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시업성적서→인증서), 기술기준 제 개정시 우선 통보
- ▣ 무역구제 :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Global S/G 배제조항 도입
- ▣ 정부조달 :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 하한선 인하(1.9억원→1억원)

15

KIET 산업연구원

2. 무역확대 효과

3 韓 관세인하로 인한 국내 생산원가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가

● 자본재·원자재의 수입가격하락 ● 제조업의 생산비용 하락 ● 수출경쟁력 강화

※ 자본재의 수입가격 하락효과(예시 : 디스플레이장비(PECVD(대당 100억원))

- 부분품(70% 미국산)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약 3억원의 원가절감 효과

- ▣ 對美 수입 자본재·원자재도 국산제품보다 미국, 일본, 유럽제품과 경쟁하는 구도
 - 반도체장비: 미↔일, 자동차부품: 미↔일, 기계: 미↔일, 유럽

● 소비재의 경우 수입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

※ 소비재의 수입가격 하락효과(예시 : 승용차(크라이슬러 300c의 경우))

- 가격 10% 하락(약 60백만원→54백만원) 예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대미 수입 소비재도 국산제품보다 일본, 유럽제품과 경쟁하는 구도
 - 승용차: 미↔일, 패션의류: 미↔이태리, 프랑스 등

16

KIET 산업연구원

3. 산업구조 개선 효과

1 제도 선진화 및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관세양허, 투자보호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 등 FDI 유치 증대 예상

- ▣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효과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 경쟁대우, 수용 및 보상 등
- ▣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
 - 협상 관련 법령 제 개정절차 투명성 제고 (입법예고기간 20 → 40일)
 - 투자자-국가 분쟁제도(ISD) 도입
 -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금지 (환경, 건강, 미풍양속 등)
- ▣ 투자자유화를 통해 투자 장애요인 해소 : **negative방식, 투명한 정책수단** 약속 등

※ NAFTA 투자증가 사례 : NAFTA 체결(93)후 미국의 환맥(18→44억불), 환개(12→130억불), 전세계로부터의 환맥(40→150억불), 환개(50→190억불) 증가

●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 제 개정 과정의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 허용

17

KIET 산업연구원

3. 산업구조 개선 효과

2 한·미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혁신 확충

● 한·미간 시장점근 및 산업내 교역 확대 → 기술협력 수요 증대

- ▣ 美 강점 분야(연료전지 자동차) : 기술협력 수요 증대 예상
 - 연료전지 차량용 수소탱크 및 발전기, 고분자연료전지 스택재료제조 생산기술 등
- ▣ 美 원천기술 확보 분야(산업용 섬유(고강력사)) : 기술협력 가능
 - 나노섬유, 고강력탄소섬유, PBO섬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섬유, PPS섬유 기술 등

● FDI 증가 → 기술이전 및 R&D센터 유치 기회 확대

- ▣ 싱가포르 : 美-싱 FTA체결(04) 이후 美모토롤라사의 3G 휴대폰 R&D센터 자국 유치

● 기술표준 분야 협력기회 확대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표준 선점 가능성 제고

-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능성 제고

● 기술인력 교류 확대

- ▣ 연구원 파견, 현지 공동개발, Post-Doc 연수 등(한 미 반도체 협력 프로그램)

18

KIET 산업연구원

3. 산업구조 개선 효과

③ 부품·소재산업 발전

● 부품·소재 수입선의 미국 전환 효과 ● **對일 의존도 완화 기대**

▣ 7대 부품·소재 품목 중 對일(145억불) 對미(83억불) 수입품목 상위 50개 중 47%가 일치

< 수입전환 가능품목 (예시) >

● 소재 : 플라스틱, 공업용 세라믹, 탄소섬유 등

● 부품 : 자동차부품, 웨이퍼, 집적회로,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연료, 정밀기기부품 등

● **美기업과의 R&D 협력, 투자유치** ●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개도국과의 격차 유지**

■ 특히, EU 등 역외국가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술력 제고

● **美선진 자동차 부품업체,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 품질 수준 향상에 기여**(05.11, KIET)
· 델파이코리아(00.9), 존슨 컨트롤스(00.7), 비스타온(00.1) 등

● **美 원천기술 + 韓 제품개발 능력** ● **‘글로벌 공급기지화’ 조기 달성 계기**

▣ 최근 **美** 제조업의 부품소재 생산 조달을 동아시아지역 이전 확대 움직임

▣ **美** 다국적기업의 부품소재 구매 일원화 전략 ● 공급업체 선정시 **對**세계공장 공급 가능

<2편> 한·미 FTA효과와 기계산업의 발전전략

-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 II** 한미FTA 타결의 주요 내용
-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1. 기계산업의 대내외 환경

국내외 시장 및 구조측면

-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점유율 상대적 열위** ⇒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
 - 한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0년대 중반 이후 순위면에서 변화가 없음 (1993년 : 9위 ⇒ 2005년 : 9위)
 - 일본은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후발 경쟁국인 중국은 수출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상제고 (1993년 : 12위 ⇒ 1998년 : 8위 ⇒ 2003년 : 6위 ⇒ 2005년 : 5위)
-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쟁력 향상과 지급화 확대**
 - 대중국 수출둔화 우려 ⇒ 인도, 베트남 등 신흥대체시장의 내수규모 제한적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권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확대 불가피

22

KIET 산업연구원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기술 및 경쟁력 제고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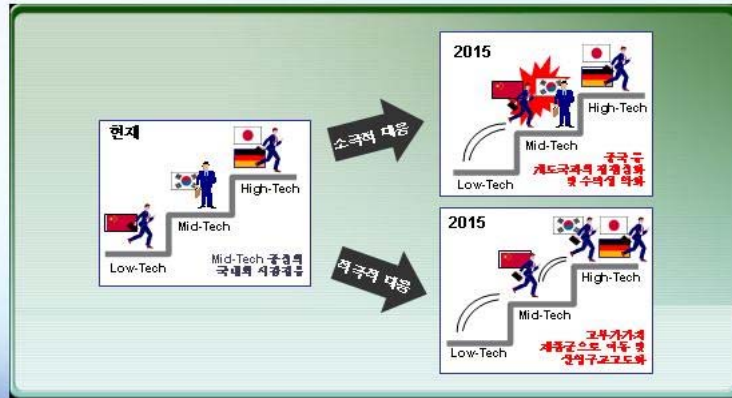
-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나 협력 등을 통한 기술 level-up 간요**
 - 전통기계 기술과 IT, NT 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한 첨단기계류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전망 ⇒ 신기술 수요 확대
 -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High-end 시장에 대한 진출확대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High-Tech화가 중요한 상황

23

KIET 산업연구원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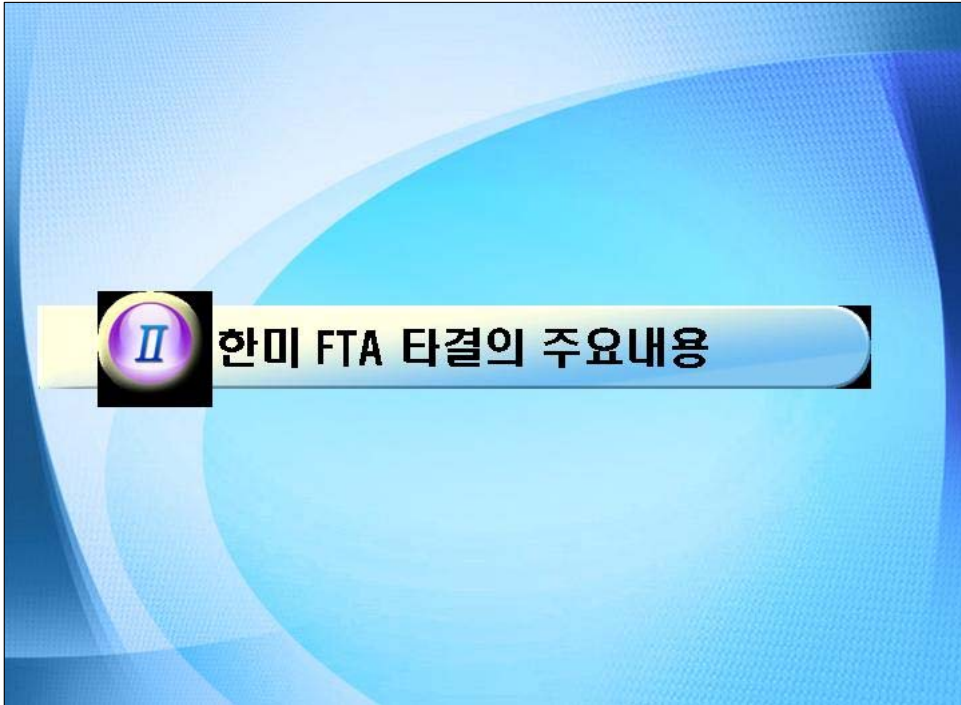
한국 기계산업의 여건과 대응 시나리오



I. 기계산업의 환경과 한미FTA 의미

2. 한·미 FTA의 의미





II. 한미FTA 타결의 주요내용

일반기계

- **미국시장 개방 폭을 넓히고 유리한 시장개방 스케줄에 합의**
 - 품목수 기준(즉시+3년 이내) : 미국 94.7%, 한국 93.9%
 - 수입액 기준(즉시+3년 이내) : 미국 89.4%, 한국 80.5%
 - 시장개방 스케줄(수입액 기준)
 - 미국 : 즉시철폐 (87.7%) → 3년(1.7%) → 5년(3.1%) → 10년(7.5%)
 - 한국 : 즉시철폐 (38.4%) → 3년(42.1%) → 5년(4.6%) → 10년(14.9%)
- **핵심기술 및 취약품목은 장기유예(10년)를 통해 피해 최소화**
 - 미국 : 베어링, 건조기, 연료분사식 펌프의 부분품 등 32개 품목 (수입액 기준 : 7.5%)
 - 한국 : 베어링, 밸브, 수직형 머시닝센터 등 48개 품목 (수입액 기준 : 14.9%)

27

KIET 산업연구원



한미 FTA의 효과분석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단기적 효과 : 관세인하 효과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 **한미 양국간의 관세를 차이(한국:6.4%, 미국:1.7%)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6천7백만불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수입액 8천8백만불 중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입선 전환효과분이 포함**
- 수입선전환에 따른 대미수입 증가분 : 연평균 약 3천만불로 전체 기계류 수입증대분의 35%를 차지

30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한미 FTA 체결에 따른 對美 관세인하 효과

단위: 천불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반기계	20,680	88,217	-67,537

주 : 10년간 연평균

한국 일반기계 수입시장에서 미·일간의 경쟁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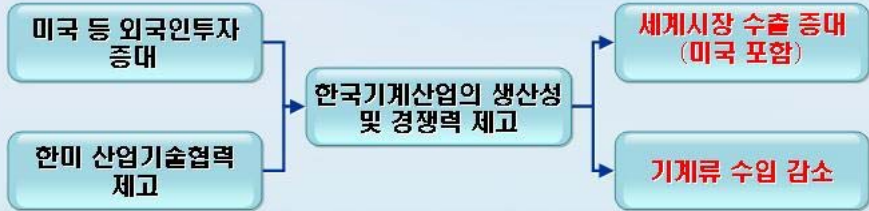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HS 4단위	72.3	77.7	75.6	72.9
HS 6단위	63.0	67.2	65.1	63.9

31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장기적 효과 : 생산성 향상 효과



32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 한미 양국간의 기술협력 확대와 규모의 경제 제고 등으로 생산성이 확대되면서 수출증가 및 수입감소효과 예상
- 무역수지 개선규모가 대미국의 경우 연평균 1천2백만불, 대세계의 경우에는 약 9천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무역수지 개선분(수출확대 및 수입감소)이 생산확대로 이어질 경우, 기계류 및 부품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증대 효과도 예상됨.

중장기적 對美·대세계 수출입 변화

단위: 천불

	대미 효과			대세계 효과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평균	10,434	-1,968	12,402	71,240	-17,595	88,834

주 : 10년간 연평균

33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한미 FTA 이후 경쟁력 확보 및 수출증대 예상 품목 사례

-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미 수출이 증가할 분야 : 미국관세를, 양허수준, 및 수출증가 추이 (연평균 10%이상 증가를 고려할 때, 공작기계, 금형, 밸브, 산업용 로.오븐 등

사례 1

- 미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제품과의 경쟁관계를 보면 관세철폐에 따른 피급효과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 공작기계 가운데 NC선반의 경우, 미국 관세(4.4%)가 철폐되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제품과의 경쟁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
 - * 미국 시장에서 NC선반 가격 ⇒ 대당 11.5만 ~ 12만 달러(일본) : 10만 달러(한국) 수준

34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미국시장에서 경쟁국과의 주요제품 경쟁관계 변화전망 (공작기계)

단위: 지수값,만달러

		일본	한국 (현재 ⇒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단가 변화 (괄호안은 일본)	비고
NC 선반	가격경쟁력(A)	100	115 ⇒ 120	10 ⇒ 9.50 (11.5~12)	대당 4,400달러 인하효과
	품질경쟁력(B)	100	95		
	A+B	200	210 ⇒ 215		
머시닝 센터	가격경쟁력(A)	100	120 ⇒ 125	25 ⇒ 23.95 (30)	대당 10,500달러 인하효과
	품질경쟁력(B)	100	93		
	A+B	200	213 ⇒ 218		

자료 : 주요 업체 실태조사, 2007. 4.

주 : 공작기계인 NC선반이나 머시닝센터는 미국시장에서 주 경쟁국이 일본임 (중국과는 아직 비경쟁적 관계).

- 머시닝센터의 경우에도 미 관세(4.2%)가 철폐되면 일본제품과의 가격격차가 현재의 100(일) : 83(한)보다 더 벌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 열위 등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시장에서 머시닝센터 가격 ⇒ 대당 30만 달러(일본) : 25만 달러(한국)

35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사례 2

- 금형의 경우,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미국시장에서 경쟁적관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주요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금형의 미 관세(3.1%)가 철폐될 경우 일본 및 중국에 비해 보다 경쟁적 우위 예상

미국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경쟁관계 변화전망 (금형)

플라스틱 금형		일본	중국	한국 (현재 ⇒ FTA 발효 이후)	비고
		가격경쟁력(A)	100	123	
품질경쟁력(B)	100	78	95		
A+B	200	199	205 ⇒ 208		

자료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자료 협조 및 담당자 면담, 2007.4.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무역환경 개선효과

- 기계산업의 경쟁요소 : 가격 및 기술경쟁 중심 → **A/S, 표준여부, 친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
- 한·미 정부간 **표준협력 확대** 및 선진 표준 시스템 도입
 - Global Standards 기반 강화
 - 표준에 대한 사전협의 확대 가능 및 업계부담 완화
-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관련 법안의 대응력 제고**
 - 미국 기계류 시장에 대한 규제대응 비용 절감
 - 관련 업계간 의견의 상호 반영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투자유치 효과

- 한미 FTA로 투자환경 조성 시, 한국을 기계류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 가능
 - 대표적 품목 : 중장비분야 (미국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시장 겨냥)
- 양국간 Win-Win도 가능 :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 혹은,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생산기지 구축 가능
 - 미국 A사의 경우, 최종 협상 타결 이후, 한국 투자의향 표명
- 캐나다, 멕시코 등 미 인접국가는 물론, 싱가포르, 호주 등도 미국과의 FTA 이후, 미국투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
 - 싱가포르 : 11.8% → 15.2%, 호주 : 20.8% → 84.3%

36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 FDI 증가율 변화

단위: %

국가	대비기간		미국으로부터 FDI의 연평균 증가율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칠레	1995~2003	2004	6.04	10.61
싱가포르	1990~2003	2004	11.84	15.19
호주	2001~2003	2004	20.76	84.30
캐나다	1990~1993	1994~2004	0.20	19.18
멕시코	1990~1993	1994~2004	15.86	29.22

39

KIET 산업연구원

III. 한·미FTA의 효과분석

대일 수입전환 효과

- 수입전환 가능 품목 : 수입규모면에서 일본, 미국이 각각 12위를 차지하는 품목
- 대표적 품목 : 반도체 제조용기계,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등

수입선전환 가능분야의 2006년도 수입현황 및 국별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평균관세율	2006 총수입	일본	미국
반도체제조용 기계	2.9	3,539	1,742 (49.2)	1,578 (44.6)
내연기관 및 터빈	5.7	1,445	485 (33.6)	299 (20.7)
펌프 및 압축기	7.6	2,244	542 (24.2)	351 (15.6)
탭, 밸브 및 유사장치	8.0	1,258	317 (25.2)	214 (17.0)
베어링	7.2	678	297 (43.8)	54 (8.0)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7.2	853	243 (28.5)	82 (9.6)

40

KIET 산업연구원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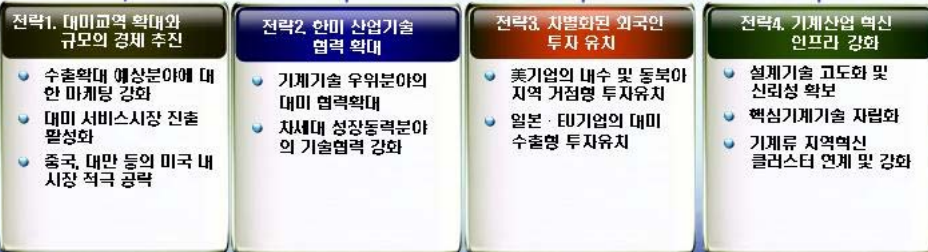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전비전 및 전략기반

발전
비전

- 200억 달러 무역흑자 달성
- 핵심 기계기술 및 설비 자립화
- 대미 수출점유율 6% [수출 6대국 진입]

안 미FTA를 통한
기계산업 발전



42

KIET 산업연구원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전략 1. 대미 교역 확대와 규모의 경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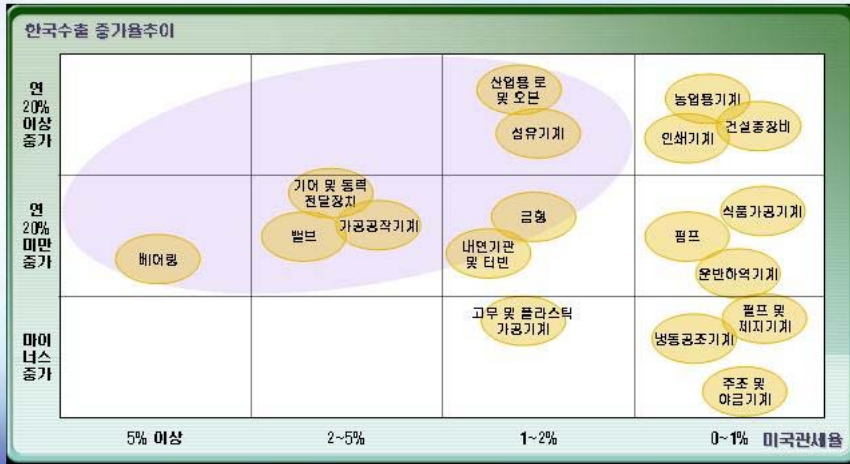
- **수출확대 예상분야에 대한 마케팅 강화**
 - 미국의 관세율과 우리나라 기계류의 대미수출 확대추이를 바탕으로 수출확대 품목선정
→ 관련 업계 중심의 적극적 마케팅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밸브, 가공공작기계, 산업용 로 및 오븐, 섬유기계, 금형, 내연기관 및 터빈 등이 주요 대상

43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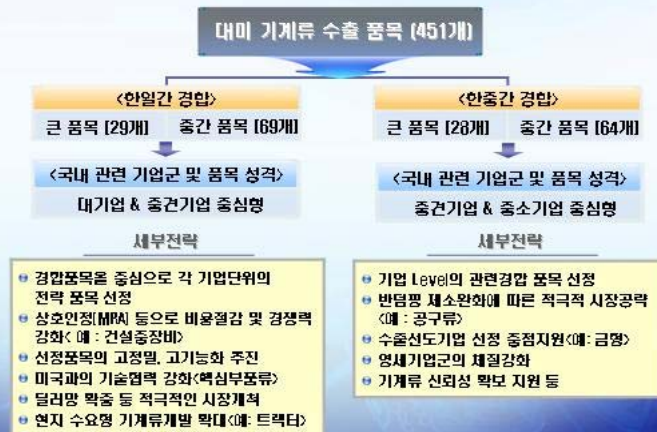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미국 관세율과 한국수출 증가율추이를 기준한 수출확대 분야 전망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미국 기계류 수입시장에서의 세부품목별, 국별 경합도를 바탕으로 한 유망품목 선정 및 차별화 전략 추진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중국, 대만 등의 미국내 시장 적극 공략

- 미국 수입(HS 84기준)통계 기준
 - ⇒ 중국은 물론, 대만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도 한국을 능가
 - * 중국 : 대만 : 한국 = 25.5% : 3.1% : 3.0%

기계류 주요 수출국의 미국내 수입시장 점유율(2006)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명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독일	말레이시아	영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점유율	25.5	13.0	9.6	8.3	7.9	6.2	3.3	3.1	3.0	2.7

- 세부 품목 중 주로 중소기업형 품목으로서 중국의 대미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난 품목에 주목
 -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등

46

KIET 산업연구원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전략 2. 한미 산업 기술 협력 확대

● 기계기술 우위분야의 대미 협력확대

-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제조용 기계, 발전설비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확대

●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기술협력 강화

- 지능형 로봇분야에서 미국의 잠재력 활용 극대화(에시)
- 특히, 미국이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집중하고 있는 지능형 제어기술분야 협력 강화

지능형 로봇 분야의 국가별 잠재력 분포도

(단위 : 개, %)

	미국	일본	독일	기타 국가	계
국제협력 대상기관	93 (59.6)	36 (23.1)	6 (3.8)	21 (13.5)	156 (100.0)
특허보유수	464 (58.8)	195 (24.7)	39 (5.0)	91 (11.5)	789 (100.0)

47

KIET 산업연구원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전략 3. 차별화된 외국인 투자 유치

- **미국기업의 내수시장 및 동북아지역 거점형 투자유치**
 -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활용 및 동북아지역 거점형 투자유치** 노력 강화
 - 미국 1000대 기업 가운데 일반기계관련 35개사 중 12개사만 현재 국내 진출
- **일본 및 EU기업의 대미 수출형 투자유치**
 - 투자유치 대상국도 당사국인 미국에 국한하지 말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 EU 등으로 확대
 - 일본의 경우, 한일FTA보다 한미FTA시 對韓투자유인의 가능성 고조
 - 지리적 인접성으로 미국시장 관세철폐의 이점을 고려한 일본기업의 **대미수출형 투자유치** 기대

46

KIET 산업연구원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전략 4. 기계산업 혁신 인프라 강화

- **설계기술 고도화 및 신뢰성 확보**
 - 설계기술 고도화 전략 수립
 - 설계기술력 제고를 위한 설계전담기관 설립 추진
 - 기업의 설계기술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행
 - 신뢰성 확보 확대 지원
 - 신뢰성 확보범위를 설계에서 시제품 양산, A/S단계까지 확대 추진
 - 미국 유명 인증마크간 상호인증 체결 확대

49

KIET 산업연구원

IV. 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핵심 기계기술 자립화

-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Top-Down방식을 보다 확대
⇒ 국산개발이 필요한 필수 생산장비, 요소기술 중심
- 차세대 생산설비의 경우, 기계업체 부담 시, 리스크가 큰 부분을 사전발굴
⇒ 기술개발지원과 병행하여 세제, 금융 등 지원 동반

● 기계류 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 및 강화

- 기계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 지역 기계업체의 경쟁력 제고
-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클러스터간 연계를 강화, 효율성 도모



제2주제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I.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인천 산업구조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인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3. 인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인천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인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6.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
7.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영향

II. 한미FTA에 대한 인천지역경제의 대응방안

1. 제조업 분야
2. 중소기업 분야
3. 농업 분야
4. 무역 분야
5. 물류 분야
6. 경제자유구역 분야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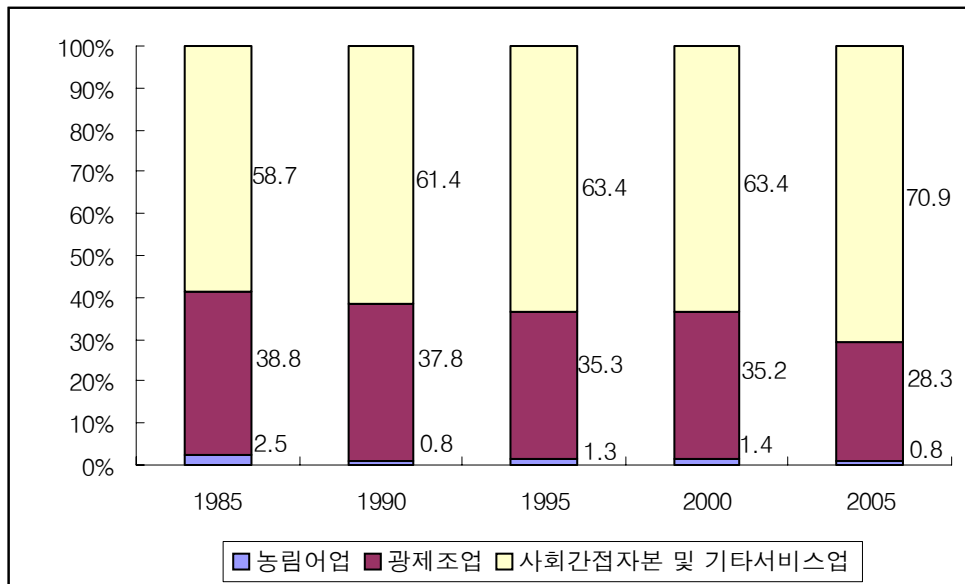
I. 한미FTA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인천 산업구조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 : 한미FTA와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의 변화>

- 생산액을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농림어업이 0.8%, 광·제조업 28.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70.9%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1> 인천지역 산업구조 추이

- 한편, 산업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1·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985년 2.5%이던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5년 0.8%로 감소하였고, 제조업의 경우도 1985년의 38.8%이던 비중이 2005년 28.3%로 감소하였음.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985년의 58.7%이던 비중이 2005년 70.9%로 증가하였음(<그림 1-1> 참조).

□ 비교열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

- 한미FTA는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인천 지역경제 내지는 인천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침.
- 즉, 시장개방에 따라 각 산업별 비교열위산업에서 산업구조 조정이 예상됨. 특히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서 산업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 특히 인천은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부품업체의 글로벌 소싱에 참여 등으로 나아갈 것임.
-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것임.
- 구체적으로 한미FTA는 특히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등 인천 주력 수출산업의 미국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여 수출확대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한·미간 무역 분업구조상 화학, 정밀기기 등 핵심부품·소재 분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현재의 무역특화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의 산업구조

-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중심, 그리고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는 도시의 성숙, 도시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것임
-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는 도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적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쟁력의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임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미FTA는 인천지역 업체 등 경제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 내지는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체적인 한미FTA가 주는 영향 중 기회요인을 최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여 인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해야 함.

2) 중·장기적 :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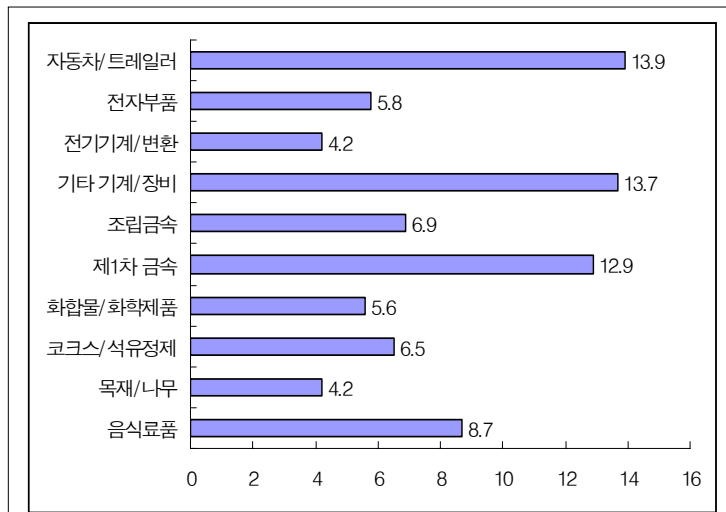
- 한미FTA는 단기적으로는 대미 비교우위력에 따라 산업구조의 조정효과를 줄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가 수반된다면
 - 자동차산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다른 산업에서도 생산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며 인천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고용 역시 증가함.

2. 인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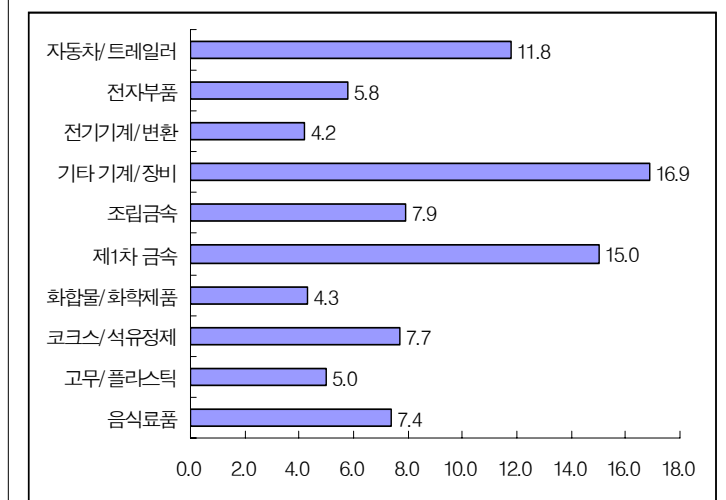
- 제조업분야에서 한미FTA의 단기적·경제적 득실을 분석해야 하나, 이와 함께 현재 인천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인천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이 무엇인지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변화 : 전통제조업의 쇠퇴>

- 1999~2005년간 인천 주요 업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인천 지역의 주요 5대 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 제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조립금속, 음식료품업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0대 주요 업종의 구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비중 하락업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1%p 감소한 11.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식료품과 화합물·화학제품이 각각 1.3%p씩 감소하였음.
 -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2005년 새롭게 10대 업종에 포함되었으며 비중은 5.0%를 기록하고 있음.
- 이들 10대 주요 업종이 인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6%로 1999년 82.4%에 비해 3.6%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1-2> 참조).
 - 특히 기계·금속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비중 면에서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IT산업, 물류산업과 함께 「인천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근거하여 4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의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목재·나무제품제조업(33.4%)과 가구 및 기타제조업(12.8%)이 매우 높고, 조립금속제품(10.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0.3%), 재생재료가공처리(7.4%), 제1차금속제조업(7.3%)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가> 인천지역 10개 주요 업종(1999년)



<그림 1-2-나> 인천지역 10개 주요 업종(2005년)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기계/금속·자동차·전자산업(물류산업 제외) 등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부품소재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므로, 제품차별화와 프리미엄시장 진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특히 미국)시장이 긴요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인천산업에 대한 개방과 규제완화를 동반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경쟁에 노출되고 또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구성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지역내 주력산업이 한미FTA의 영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져 수출증대→투자확대→고용확대→소비확대→재투자로 이어져 수출증대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 산업별로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은 미국시장의 확대로 성장가능성이 확대됨. 따라서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되고 있으며,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IT산업, 생물산업 등은 한미FTA를 통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음.

1) 기계/금속 산업

- 우선 인천산업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금속제품 등의 산업에서는 주요 생산품을 고려할 때 한미FTA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직접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미국시장에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임. 또한 대미수입은 주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첨단 부품·소재가 많아 관세 철폐 효과가 미미함.
- 대신, 일부 세부 제품의 경우 대일수입에서 대미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의 칼, 면도날, 전공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인천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 있음.
 - 현재 미·일간 경쟁적 수입품목 비중은 평균 53.7%로, 조립금속부품의 경우 70%, 고무·플라스틱제품과 정밀기기부품은 66%나 차지하여 기존에 일본 수입 핵심부품소재의 미국산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전망이다.

- 또한, 반도체 기계장비 중 현재 8%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등 핵심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즉, 핵심부품소재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시킴.
 - 따라서 지금까지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던 기계제품의 대미무역 흑자 폭은 감소될 수 있음.
- 한편 공작기계(관세 4.2%)와 밸브(관세 3.2%)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대미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2006년 인천지역의 기계제품 대미수출은 13억 3,700만불에 달해 인천지역 대미수출의 56.5%, 총 수출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한미FTA 이후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FTA는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부 제품의 경우 대미 수입증가에 따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함. 특히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림통상(주), 경동산업(주), 남동공구공업(주) 등은 큰 위기에 접할 수 있으므로 미국 관련기업과의 연계성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자동차 산업

-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서 야기되는 생산위축보다는 오히려 대미 수출호조로 인한 승용차 및 부품분야의 생산확대 효과 등으로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인천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대미수출은 6억 6,600만불에 달해 이미 인천지역 대미수출의 28.2%, 총 수출액의 4.2%를 기록하고 있음.

- 우선 GM대우의 미국 현지 판매와 대미 완성차 OEM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현재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소형차만이 GM 브랜드로 수출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의 대미수출 역시 인천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GM 이외에도 다른 미국 완성차(특히 포드사)도 한국산 부품의 조달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특히 자동차 변속기의 경우 지금까지 주요 수입선이 일본이었으나, 향후 미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 자동차 변속기는 현재 자동차 부품·소재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품목으로 수입의 60%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GM의 기술을 기반으로 GM대우나 대우파워트레인 등을 통하여 현지생산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핵심부품만 수입하고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FTA 협정은 수입선이 미국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함.
- 물론 내수회복과 신흥시장개척이 함께 이뤄져야 하겠지만, 미국 완성차 및 부품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동차부품생산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완성차보다도 부품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예상됨.
 - 특히 남동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관련 부품업체들 - 특히 동양기전(주), 대광 다이케스트공업(주), (주)다성이나 부평·주안산업단지내에 있는 경신공업(주), (주)고려인천 등은 한미FTA 협정의 결과 대미수출은 물론 국내에서의 판매량 증대 및 고용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주의할 점은, 자동차 원산지 판정방식에서 미국의 순위가법과 한국의 공제법·집적법 등 양국의 방식을 각각 사용키로 하여 미국산 일본차의 지역내 수입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 즉, 원산지 비율이 낮아져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차들(예를 들어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닛산 알티마 등)이 미국산으로 인천지역 자동차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

3) IT 산업

- IT산업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됨¹⁾. 그러나 이로 인한 미국산 부품의 인천시장 잠식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미국산 부품은 반도체 등 대부분이 무관세이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부품분야이기 때문임.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와 달리 전자부품산업에서의 대미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디지털 TV 등 디지털 가전, LCD 모니터 등의 관세 폐지로 대미 수출이 기대됨.
 - 한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장비분야는 한미FTA 체결 이후 투자 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며²⁾, 지역내 장비업계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양국 기업간 교류 내지는 투자 증대 등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통신기기 역시 비슷한 상황임.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관세철폐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반면 일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될 것임(김중기,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통신기기산업)」, 2006, 산업연구원 참조).

1) 증시 무관세 품목수는 한국이 290개(52.5%)에서 520개(94.2%)로 증가했으며, 미국도 299개(58.9%)에서 471개(92.7%)로 증가하였음. 반면 한국은 32개(5.8%), 미국은 37개(7.3%) 품목을 민감성 정도에 따라 3년, 5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2) 현재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인 경우 기계부품으로 분류되어 기본세율(8%)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FTA의 체결로 역관세가 없어지고, 관세 감면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가 해소되고 관련업무와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음(주대영, 「한미FTA의 산업별 영향(전자부품산업)」, 2006, 산업연구원 참조).

4) 목재/가구 산업³⁾

- 미국이 목재가구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수는 34개로 이들의 가중 평균관세는 4.2%임. 한국은 반면 121개 품목에 가중평균 3.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율이 높았던 목재 가공품과 가구는 관세 폐지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예상됨(특히 목재창호 및 목공품, 금속제 의자 부분품, 목재식탁 등). 단, 이들 제품들이 고가품에 집중되어 인천 제품과의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의 고가품 수입선이 전환 되는 것이므로, 인천지역 생산업체(특히 중견·대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원목, 제재목, 베니어용 단판, 보드, 섬유판, 건축용 목재품, 목재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의 고가품이 집중 수입증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특히 합판·원목 등을 생산하는 이건산업(주), 선창산업(주), 한양산업(주), 동서가구(주) 등은 미국 관련기업의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임.

3)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의 2006년 연구보고서 「한미FTA의 산업별 영향(목재/가구산업)」을 참조한 것으로, 한국의 전반적 목재/가구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나, 인천의 목재/가구산업의 전국비중이 40% 가까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대로 인천지역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인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반면, 경쟁력이 약한 내수산업(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은 한미FTA로 인하여 수입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시장확보에 어려움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실제 중소 제조업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많이 다름에 주의하여야 함. 중소제조업체들은 오히려 긍정적 요인을 강조하여 대미 수출확대, 미국산 고품질 원자자재의 저가 수입, 미국기업과의 합작사업 추진 등 선진 경영기법 도입, 그리고 미국기업과의 산업기술협력 추진 등을 기대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는 “미국과의 직접적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점, 생산제품 특성상 미국산 제품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낮음” 등의 배경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 역시 각 산업별 상황에 다름에 주의하여야 함.
-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장비, 금속제품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전반적 한국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 인천의 경우 지역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계·금속산업은 한미FTA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직접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오히려, 한미FTA 이후 예상되는 한·중·일 FTA는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함.
- 반면 섬유, 의복, 가죽, 목재, 생활용품, 자동차부품 등의 중소기업에게는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이 오히려 긍정적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출 및 생산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이는 현재 미국의 품목별 평균관세율이 양말이 11.5%, 언더셔츠 19.7%, 고무제 장갑 14%, 가방 및 핸드백 20%, 모자 및 잡화 11.1%에 달해 관련

관세가 폐지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의 미국시장 수출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임.

- 그러나 인천 목재/가구산업의 경우 미국의 고급 가구상품 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임.

4. 인천 농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됨. 곡물가격 이외에도 기타 작물, 가공식품가격, 육류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농산물 생산은 1조 8,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2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국내 쇠고기 생산감소 규모는 연 2,000억원 정도로 한우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함(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참조).
- 물론 인천지역 농업비중이 1.0%대로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의 결과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피해는 국내 농어업 분야에 대한 부정적 파급만큼 크지 않으리라 예상됨. 오히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
- 단,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강화지역의 경우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아래 대체 소득원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5. 인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추이>

- 인천의 2006년 말 수출액은 약 159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약 207억원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2000년 이후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2002년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 크게 상승한 후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표 1-1> 참조).

<표 1-1> 인천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7,527	6,026	5,681	8,221	10,645	13,033	15,942
수 입	10,245	8,819	8,383	10,582	13,574	16,459	20,743

자료: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내부자료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미 양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이 무역구제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중이 큰 인천지역에는 수출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출규모의 확대는 중소기업들의 규모의 경제효과 및 비용절감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인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대미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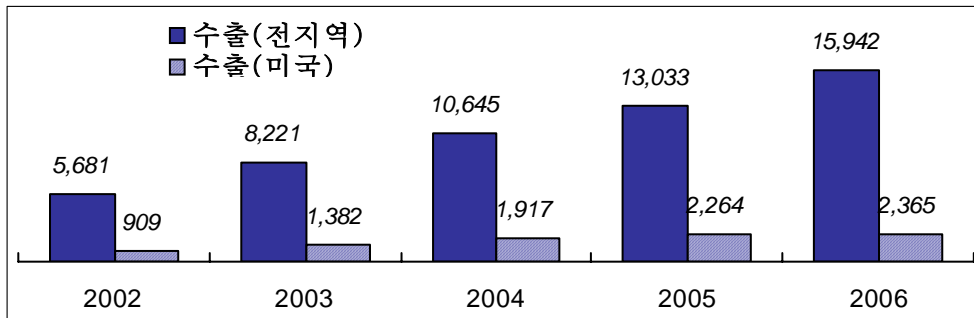
- 2006년 인천의 대미국 수출은 23억 6천만달러로 전년대비 22.3%가 증가하여 인천 전체 증가율 26.0%보다 약간 낮은 증가에 그침.
 - 평상적으로 인천의 대미국 수출은 인천 전체수출보다 다소 높은 수출증가 형태를 보여 왔으나,
 - 2006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대비 4.5% 증가에 불과하여 인천 전체 수출 증가율(22.3%)을 크게 하회함.
- 이에 따라 인천의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 역시 2005년까지 16~18% 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수출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대미국 비중이 18.0%까지 올라갔으나 전반적으로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2005년 이후 대미국 수출 증가추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비중이 2000년 수준인 14.8%까지 낮아짐(<표 1-2> 참조).

<표 1-2> 인천의 대미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연 도	인천 전체 수출		대미국 수출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2002	5,681	-	909	-	16.0
2003	8,221	44.7	1,382	52.0	16.8
2004	10,645	29.5	1,917	38.7	18.0
2005	13,033	22.4	2,264	18.1	17.3
2006	15,942	22.3	2,365	4.5	14.8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1-3> 인천의 대미 수출 추이

□ 한미FTA가 체결이후 인천 대미수출이 자동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 전망

- 인천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와 전자전기제품이 대미 총수출의 44.8%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2006년 대미 수출 약 5억 달러를 기록한 자동차는 2007년 들어 2월 현재까지 8천만 달러 수출을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52.4%의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음.
 - GM대우의 미국 현지 판매와 완성차 OEM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 부품업체도 수출확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
 - 주로 GM대우,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부품 동반 증가가 기대됨.
- 건설 광산기계 및 금속기계의 경우 양국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교역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반 기계류의 경우 가격보다 기술, 품질, 납기 및 A/S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표 1-3> 우리나라 제조업 업종별 한미FTA 영향

산 업	평균관세율(%)		수출증대 효과	수입증대 효과
	한국	미국		
자동차	7.9	2.7	○	△
기 계	6.6	1.9	○	○
석유화학	6.1	4.3	△	△
의약품/화장품	6.0	1.5	△	◎
섬유/의류	9.7	8.6	◎	X
전 자	5.0	1.6	○	△
철 강	0	0	△	△
고무/고무제품	7.1	2.3	◎	△
가죽/가죽제품	8.0	4.3	◎	△
신발/모자류	10.2	11.1	◎	△

◎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X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자료 : 무역연구소

- 전자제품 중에서 대미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유무선통신기기는 이미 대부분 무관세이므로 크게 수출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한미FTA로 인해 수출 증가가 가장 기대되는 섬유, 의류의 경우 인천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수출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표 1-3> 참조).

2) 수입에 미치는 영향

<대미 수입추이>

- 2006년 인천의 대미국 수입은 12억 2천만달러로 전년대비 14.0%가 증가하여 인천 전체 증가율 24.4%보다 크게 낮은 증가에 그침.
- 평상적으로 인천의 대미국 수입은 인천 전체수입보다 크게 낮은 수입증가 형태를 보여 왔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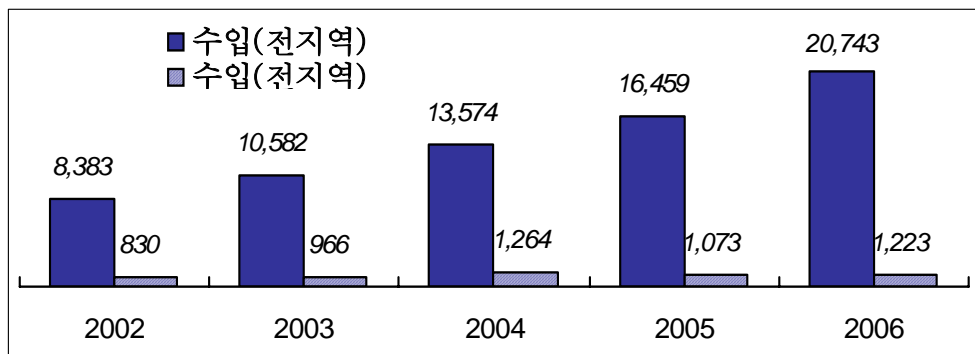
- 특히 2005년에는 대미 수입액이 절대적으로도 감소(▽15.1%)하여 전년대비 4.5% 증가에 불과하여 인천 전체 수출 증가율(22.3%)을 크게 하회함.

<표 1-4> 인천의 대미 수입 추이

(단위: 백만불, %)

연 도	인천전체 수입		대미국 수입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2002	8,383	-	830	-	9.9
2003	10,582	26.2	966	16.4	9.1
2004	13,574	28.3	1,264	30.8	9.3
2005	16,459	21.2	1,073	▽15.1	6.5
2006	20,743	24.4	1,223	14.0	5.8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1-4> 인천의 대미 수입 추이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천의 미국에 대한 수입비중은 2004년 까지 9% 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즉, 2005년 대미국 수입 증가추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비중이 6.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06년에는 수입절대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중은 5.8% 까지 하락했음(<표 1-4> 참조).

□ **한미FTA 체결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의약품 및 화장품, 기계류, 농수산물 등이나 인천 총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

- 인천 대미 수입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식물성 물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기타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뿐 아니라 검역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는 않음.
 - 인천의 농업비중은 1%대로 극히 낮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강화지역의 경우 외국 농산물의 수입 개방 압력아래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적으로 대미 수입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류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
- 반도체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수입증대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 **인천시와 미국간 무역은 전체적으로 산업간 무역 비중이 높고 산업내 무역에 있어서는 수직적 분업관계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

- 즉, 무역구조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구조조정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더 나아가, 한미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국내 제조업분야에 이루어진다면 기술이전,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이외에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최근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확대될 것임.

6.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

- 현재 해운·항만분야의 경우 양국 간의 해운·항만 서비스 교류가 WTO 체제 하에서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 되어 있고 항공분야의 경우에도 양국 간에 아시아와 미국간 수요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항공자유화 협정에 의한 개방이 상호간에 이루어져 있어 해운·항만 및 항공분야의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반면 중장기적으로 한미FTA로 인한 인천지역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임.
- FTA로 인해 양국 간의 교역은 양적·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 즉,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양국가로의 (외국으로의) 교역전환, 그리고 무역 창출 효과로 전체교역량의 증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교역품목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됨.
 - 수도권과 인접해 수출 및 수입의 주요거점으로서 인천지역의 공항·항만의 역할 및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FTA로 인해 물류부분의 개방이 이루어지면 낙후되고 전근대적인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요구할 것이며 국제운송확대에 따라 물류부분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공동물류가 확대될 것임.
 - 인천지역의 영세한 물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체간 제휴 및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표준 파렛트의 국제규격화 작업 등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국제특송, 3PL, 창고업 등이 상호간의 교류의 증가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유통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동물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FTA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회원국간 해운항만 및 항공을 비롯한 수송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임.

- FTA로 회원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교역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해운항만 및 항공서비스 부문의 협력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어짐.
 - 한미간 경제협력의 강화는 수송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임.
 - 한미FTA 체결로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해운항만 및 항공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수 있음 .
 - 미국과의 긴밀한 단일 항공시장 구축을 통해 인천공항이 향후 보다 탄력적인 항공노선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미FTA로 물류수요가 확대되면 입지여건이 유리한 우리나라가 환적 및 부가가치 활동기지로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 가공인정규정을 이용하게 되면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가 가능함.
- 특히 인천항 및 인천공항은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의 중간거점으로서 또는 수도권 생산지역에 일본에서 수입된 생산부품을 처리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확보.

7.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영향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특정 지역으로서,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 포괄적인 산업분야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음. 여기서는 산업분야, 비즈니스라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분야를 주 대상으로 다룸.

1) 산업분야

-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신산업 - 특히 BT, IT 산업 - 유치계획이 있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BT, IT 산업체가 집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체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본격적으로 BT, IT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시점에는 특히 생물분야, 의약품분야의 협상내용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한미FTA의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 있어 제기된 쟁점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도를 고찰할 수 있음. 즉, 그간 FTA 협상과정을 통해 제기된 첫 번째 쟁점사항인 미국 측의 혁신적 신약 범위의 확대 및 혁신적 신약 분류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음. 즉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약제 비적정화 방안의 핵심적인 사항인 positive list system의 운용에 있어 혁신적 신약과 일반 신약에 달리 적용되고 있는 이원화된 가격결정방식을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가격결정방식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면 실령 미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약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약제비 인상 가능성은 약하다고 사료됨.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실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타결을 통해 제약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정리해 보면, 국내 제약회사의 경우 연구개발능력이 타사에 비해 우수하여 치료효능 면에서 탁월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자사제품을 보험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즉 FTA 체결로 인해 치료효능이 우수한 미국제품에 비해 비용효과성의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을 하고자 할 것임.

그리고 연구개발능력 면에서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후발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비용 효과성에 기초하여 보험급여목록에 의약품을 등재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후발의약품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곧 가격인하가 됨. 때문에 지금처럼 보험자의 협상력이 그리 크지 않아 거의 모든 의약품이 등재되는 상황에서 타사 의약품과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 채택하는 비가격경쟁, 즉 치열한 광고, 판촉행위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어 이 부분에 투입되었던 부분을 재원으로 가격인하경쟁에 뛰어들 수 있으며, 또한 의약품 생산과정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2007년, 286-289쪽 참조).

2) 서비스산업 분야

- 국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국제 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서비스업이 주요 대상중 하나이므로, 한미 FT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한미FTA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 된다면 개방되는 시장은 전국적일 수 있지만 제조업과 달리 핵심 사업장은 서울 및 주변 도시에 소재할 수밖에 없음.
 - 신규진입업체의 입지와 관련하여 서울과 인천 그리고 일부 신도시의 결합적 관계가 예상되지만 인천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은 이미 고차서비스업의 집적이 크게 이루어진 곳이므로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음. 그러나 인천은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적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쾌적한 정주여건과 우수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즉, 경제자유구역이 특정 공간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면 한미FTA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지적 장점이 희석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 미국의 서비스업체가 수도권 대도시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특히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조치, 음용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권한이 포괄적

으로 유보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육 및 의료부문에서의 입지적 비교우위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임.

- 전체적으로 서비스분야의 한미FTA는 개방의 내용과 속도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장점을 희석시킬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 부가적인 제도적 혜택 등을 살려 미국 서비스업체의 한국진출 활성화를 잘 활용한다면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3) 외국인투자 분야

- 한미FTA가 체결되면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장확대, 시장접근 허용, 유리한 투자환경조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의 투자유치활동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사상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풍부한 미국의 유동자금이 국내 대규모 빌딩을 중심으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 이에 따른 국내의 풍부한 유동자금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국임.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미국이외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및 경제적 대외 신인도 제고에 따른 투자 증가가 예상됨.
- 반면 교육비의 해외유출 확대문제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편의시설 확대와 같은 문제가 의료 및 교육부문의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정부차원에서 있을 수 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지는 국내 타지역과의 차별적 우위성의 일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요약하면, 한미FTA체결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국내제도의 개혁이 수반될 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주의하여야 함.
- 즉,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직적 FDI를 늘리고, FTA가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므로 미국으로부터의 FDI도 증대될 수 있으나, 이는 경제자유구역내 기업환경이 이러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함.
- 왜냐하면, 인천과 미국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국시장 진출기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택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II. 한미FTA에 대한 인천지역경제의 대응방안

1. 제조업 분야

- 한미FTA의 인천지역 제조업분야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한미FTA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제고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나, 특히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개별 경제 주체의 능동적 대응이 절실함. 그러나 본고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할 것임.
- 우선 지역내 유망 전통 제조업 중 간접적 영향을 받을 산업과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력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일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로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달성하고, 신성장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화를 달성해야 함.
- 이와 함께 한미FTA로서 시장개방의 피해를 입을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야 함.
- 이외에도,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피해보는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이 필요함. 즉,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 퇴출 발생 가능성(단기적, 중·장기적)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요구됨.

1) 기계/금속 산업

-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한미FTA로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나, 곧 예상되는 한·중·일 FTA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기계·금속산업의 특화 및 연계를 위해 인천은 기반정비에 주력해야 하고, 특히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해 집중투자를 해야 함.
 - 또한 연구개발된 기술의 산업화와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인근 지역(특히 경기 시화·반월지역)의 혁신역량과의 적극 연계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되겠지만, 특히 고급/고부가가치 상품군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협력일정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단계적인 시장개방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인천 기계산업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의 지능형 제어기술 분야 협력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자인, 성능, 해외마케팅 등에서 취약한 지역 업체들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의 지원이 요구됨. 독일, 일본의 경우 금속소재산업의 발전이 다양한 산업용 공구 등의 금속제품의 개발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함.
- 한편 지역업체(특히 혁신형 중견기업)들은 한미FTA체결 후에 국내에 들어올 미국현지법인과의 활발한 협력이 필요함. 특히 미국기업과의 해외시장 동시진출·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 특히 대미 수출 압력을 받고 있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림통상(주), 경동산업(주), 남동공구공업(주) 등은 미국 관련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민하여야 함.

2) 자동차(부품) 산업

- 한미FTA로 인해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자동차분야의 경우 지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의 개발 및 생산기지로의 변신이 요구됨.

□ 거래규모와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한 수익극대화전략

-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열위산업은 구조조정을 받게지만, 자동차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통하여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가솔린소형 및 가솔린중형 승용차부문의 경쟁력은 미국제품을 능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비교우위를 유지해나가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무역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자동차부품산업에서는 지역산업적 기반을 가진 새시, 차체, 의장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지만,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적극적인 연구개발활동, 국제 공동연구활동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자동차산업의 선진화전략

-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비교우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 또한 미국내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북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하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국내의 선호도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산 일본자동차의 국내시장진출에 따른 국내시장의 잠식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동시에 부품업체간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해외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규모 확대와 역량강화가 요구됨.

- 특히 남동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관련 부품업체들 - 특히 동양기전(주), 대광 다이케스트공업(주), 대동시스템(주)나 부평·주안산업단지내에 있는 경신공업(주), (주)고려인천 등의 인수 합병 논의는 물론 해외 파트너쉽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기한 대형 부품업체 이외에도 지역내 중소 부품업체는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기술로드맵과 지역산업 로드맵 등을 연계하여 전문화를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한편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러한 자체역량 이외에도 한미FTA라는 외부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수출확대전략(특히 수출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함.
-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는 이미 구축되고 있는 관련 산업 클러스터 지원(자동차부품기술센터, 자동차성능시험소 등)과 집적화 단지조성(자동차부품소재단지, 자동차테마파크 등) 이외에도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부품의 대형화 및 전문화 추진 지원이 요구됨.

3) IT 산업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미 양국 기업들은 IT산업분야의 경우 상호협력 관계가 가능하므로 미국의 전자부품업체들과 ‘공동의 표준화 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와 함께 정보기술 인력 교류 활성화 및 IT분야의 공동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함.
- 특히 지역내 전자부품 대기업인 (주)프로칩스, 한국단자공업(주), 아나반도체(주)등은 이러한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업체들은 (특히 통신기기 분야) 대기업-중소기업간 그리고 중소-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 및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와 제품 다양성 등을 위해 지속적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통신기기 관련 대기업들((주)한국샤프, (주)홍창 등)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또한 혁신 중견업체들은 미국 업체와의 선진적 제휴 및 구조조정 등 기업 자원의 체질 강화 노력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는 전자·정보기기산업과 S/W산업(특히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2단계로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4) 목재/가구 산업

- 미국 목재가구의 소재산업과 최종재 산업간의 수직계열상의 확실한 분업 관계를 활용하여, 공정상 협업관계 강화로 상호 Win-Win 관계가 가능함. 예를 들어 미국은 우수한 가공기술, 디자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인천업체들은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기지화를 강화함.
- 이러한 협업관계를 바탕으로 인천 관련 업체들은 수입목재를 펄프 혹은 보드용 보다는 고부가가치 품목용으로 용도 개발이 절실함. 특히 친환경 소재개발 및 유해물질이 적은 방부·가공 처리된 친환경 목재가공품 및 가구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 투자 확대, 소재개발 등의 노력이 시급함. 특히 합판·원목 등을 생산하는 이견산업(주), 선창산업(주), 한양산업(주), 동서가구(주) 등은 미국 관련기업의 연계방안 가능성 등을 시도해야 할 것임.

2. 중소기업 분야

- 산업별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선 한미 FTA에 따른 기회와 위협을 감안하여 준비되어야 함. 우선 기회로는 국제화, 전문화, 대형화의 가능성을 들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규모 성장시장 접근 기회, 둘째, 혁신기반 강화, 셋째, 경영선진화, 넷째, 고품질 미국산 부품 및 중간재 저가수입(원가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기술장벽 제거, 반덤핑 남용 위협완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들 수 있음.
- 반면, 미국산 경쟁 제품의 수입급증, 모거래 기업의 수입 경쟁부담 전가 등의 위협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분석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첫째, 수출 또는 내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미국의 막대한 수입시장을 공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과 자원을 감안하여 업종별 대미 수출 강화방안이 제일 중요함.
 - 특히 수입수요 증가품목(예: 첨단소재 관련 제품)을 집중 공략
-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한미 기술협력 활성화가 요구됨. 즉, 한미 산업기술협력 참여, 벤처캐피탈 유치 등 미국의 선진 기술과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여야 함.
 - 특히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강한 기계부품,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미국기업과 기술협력 추진
- 셋째, 수입대체 중소기업이나 수입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입대체 전략이나 협력을 활용하고, 이 경우 영세 중소기업들이 모거래기업과 상생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또한 무역조정지원법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전환 등으로 수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시장개방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는 단기경영자금이나 설비투자금의 지원을 들 수 있음.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장개방 이후 매출액이 25%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이외에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상태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인천지역에서도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3. 농업 분야

-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강화지역의 경우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아래 대체 소득원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 이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그런데 농업분야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는 우리들이 국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한미FTA를 통해 처리될 문제는 아님.
- 한국 농업 전반적인 대응방안으로 우선 협정문과 관련한 쟁점인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한국은 품목특성 및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입쿼터 관리방식 인정을 획득하여야 함.
- 둘째, 국내적으로 민감 품목 - 특히 미국의 전략품목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대두, 옥수수, 밀, 땅콩, 바나나 등 - 에 대해서는 관세철폐와 관련한 예외적인 취급을 관철해야 함.
- 한편, 강화군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요 농정시책 중에는 우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중요한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어 온 시책들(예: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등)의 보다 실속 있는 보완이 요구됨.
 - 즉, 생산위주의 농업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기반아래 고소득작물을 육성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도모하여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강화군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강화 특화작물의 브랜드 파워창출 사업”은 한미FTA 대응방안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큼. 즉, 한미FTA 체결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아래 대체 소득원의 발굴이 필요하며, 강화만이 갖고 있는 특화작목(특용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원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임.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소득작물이 농업대국 - 특히 미국 - 과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집중 육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 즉, 강화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화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안으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2·3차 산업을 개발하여야 함. 이러한 농업의 복합산업화와 농산물 가공 등 유통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더 나아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축산환경개선 및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이 시급한 바, 기존에 시행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톱밥구입비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가축개량 지원,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 등도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함.
- 결론적으로 강화군은 벼를 대체하는 신성장동력 작물(인삼, 시설채소 등)을 발굴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 농촌 관광산업의 확대 추진, 강화 농축산물 유통사업단 구성 및 운영 등 강화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4. 무역 분야

- 대미 수출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인천지역의 전략산업인 부품소재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강화, 선진기업과의 합작 등 보다 적극적인 기술 개발노력을 실시해야 함.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목의 고도화, 수출 인센티브 부여, 수출 관련 인력 개발, 수출협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의 R&D 기반 확대를 계기로 전통 제조업체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산·학·연 협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반도체, 휴대폰 등 가격경쟁력 있는 고가 제품이 관세 철폐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업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수출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출관련 제도 및 수출시장에 관한 정보 공유, 수출 관련 인프라의 공동이용, 공동마케팅 추진 등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의 육성 및 활용을 통해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는 인천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미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임.

5. 물류 분야

- 교역 물동량 증가에 따른 공항 및 항만 인프라 확충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함.
 -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를 통해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정 기간별 물동량의 정확한 예측과 이에 따른 인천공항 및 인천항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검토함.
- 기업간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공동물류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FTA를 통해 물류부분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또는 외국기업간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물류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유통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동물류를 확대 보급하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농수축산물 등 수입에 따른 인천지역의 중소규모의 물류창고업의 전문성, 표준화 마련이 필요함.
- 인천공항을 고부가가치·막힘없는 물류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류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함.
 - 주변지역을 전략적·복합적으로 개발하여 FTA 국가간 단일항공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여 항공노선망 확충에 노력함.
 - Frequency(빈도)와 Connectivity(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환적/통과 화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복합수송기능의 제고가 필요함.
 - FTA 국가간 물류수요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Sea & Air의 수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6. 경제자유구역 분야

1) 산업분야

(1) 생물산업

- 특히 송도신도시 지역내에 핵심적으로 유치하게 될 생물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특히 송도테크노파크를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생물산업단지와 생물산업벤처단지 등을 연계하여 조성함.
 - 즉, BT분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되 장기적으로는 BT 서비스업과 연구소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4공구에 예정되어 있는 바이오단지(2006: 시설착공 기준)에는 BT 중심의 연구단지와 연구 및 제조업이 병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이공계 대학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주거기능도 유치하여 전략적 기업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함.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존의 바이오산업단지의 확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5·7공구 남단에도 BT기업의 집적지로 조성함.
- 송도신항 공사와 맞물려 10공구가 매립되면 이 지역에 주거 및 수변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단지를 지정하여 BT 중심의 연구 및 생산기지로 조성하여 5·7공구와 연계함.

(2) IT산업

- 생물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내 - 특히 송도신도시 - 에 IT분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되 장기적으로는 IT 서비스업과 연구소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5·7공구에 예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에는 IT 중심의 연구단지와 연구 및 제조업이 병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이공계 대학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주거기능도 유치하여 전략적 기업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함.

- 송도신항 공사와 맞물려 10공구가 매립되면 이 지역에 주거 및 수변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단지를 지정하여 IT 중심의 연구 및 생산 기지로 조성하여 5·7공구와 연계함.

2) 서비스분야

-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장에서는 한미FTA에 따른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국내 지역, 특히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울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한미FTA에 따른 서비스업 등의 분야가 개방됨으로써 관련 시장이 확대되어 발생하는 미국의 투자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전면 개방이 어려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의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서비스업체의 한국 진출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인천의 차별적 우월성이 유지되는 정도가 바람직함.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타지역에 비해 보건의료 및 교육관련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인데 후속입법이 미진하여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다소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음.
 - 한미FTA를 통한 관련 분야의 전국적 개방은 시민사회와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예상됨.
-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하고 국내여론의 반발이 강한 분야에서 FTA 대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대내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전면적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비스부문의 개방은 금지(유보)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전국적 또는 일시적 개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사회적 반발이 일 것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 한미FTA의 유보조항으로 하고 그 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유보분야에 대해 시범적 개방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서비스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특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업 육성과 발전이 중요한 과제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서 제조업과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임.

3) 외국인투자

- 한미FTA를 통해 결정되는 내용은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임. 따라서 기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한미FTA와의 관계를 재해석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유지해야 함.
- 따라서 한미FTA에 따른 서비스업 등의 분야가 개방됨으로써 관련 시장이 확대되어 발생하는 미국의 투자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전면 개방이 어려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성 증대와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천지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효과를 위해 여타 지역과 차별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함.
- 특히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지역의 투자지역으로서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또한, 한미FTA를 통해 결정되는 내용은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임. 따라서 기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한미FTA와의 관계를 재해석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유지해야 함.
- 또한 행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함.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투자관련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행정협력체제가 필요함.
- 미국과 함께 중국, 일본, EU 등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인천지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과 투자방식 등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함.